모란이 피듯이…강진읍 영랑로 일대 확 바뀐다

군 '美프로젝트' 대상지 선정…야간조명·화단·조형물·간이쉼터 등

강진군이 '강진읍 美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영랑로 일대를 선정해 정비사업을 벌인다. 강진읍 도로.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강진읍 美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영랑로 일대를 선정했다.

올해 가을까지 강진군은 목재 화분이 있는 영랑로에 야간 조명을 포함한 성벽 화단을 배치하고, 터미널 부근 조형물을 리모델링해 간이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진읍 美프로젝트'는 강진읍 시가지 일대 도시미관 저해 요소를 찾아 개선해 아름답고 쾌적한 강진읍을 만드는 경관 개선 사업이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영랑로는 강진읍의 중심지로 탐진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와 연결돼 도심의 중앙 축 역할을 하며 유동 인구가 많다.

강진버스터미널이 자리해 있어 관광객에게 강진의 첫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공간이다.

영랑로 일대에서는 ▲터미널 입구 옆 기존 조형물 리모델링 ▲메가커피 앞 교통섬 내 간이쉼터 조성 ▲영랑로 보도 옆 배치된 기존 화분 교체 후 성벽 화단 설치 ▲택시 승강장 옆 성벽 화단 설치 등 총 4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강진군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 화분이 위치한 구간만 대상으로 하고, 터미널 입구 부근에 조성될 조형물 및 성벽 화단 또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와 면적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전남도 계약 심사 등 절차 이행 후 올 가을 시행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중심지인 강진읍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해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강진읍 美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광객 5만명 유치의 시작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과 군민들의 미소"라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고향사랑기금 사업 나주시 아이디어 공모

나주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고향사랑기금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나주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나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는 응모작들의 창의성, 공공성, 지역성, 능률성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1명)은 상금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2명)은 10만원 등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나주시 누리집에 발표하고 개별 통보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장성군-상무대, 지역 농산물 소비·상생 협력 '맞손'

보병학교 등 급식 관계자 간담회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현장 방문

장성군이 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상무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과 상무대가 지역 농산물 소비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장성군은 최근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공병학교, 근무지원단, 57정보통신대대 등 상무대 급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 2층 교육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장성군 역점사업을 공유하고, 상무대 급식사업과 지역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7월 준공 예정인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장성산 먹거리가 상무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를 학교, 복지시설 급식 등에 공급하는 통합물류시설이다. 장성지역 농산물 공급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성군에 위치한 상무대는 3만 5000여 명 규모의 육군 최대 군사교육시설이다. 발생되는 급식 수요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간담회를 마친 상무대 관계자들은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운영계획을 청취했다.

또 삼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삼서농협 군급식로컬푸드지원센터를 찾아 산지에서 수확한 먹거리가 위생적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참관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열어주고, 군부대에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며 "상무대와의 적극 협력을 발판 삼아 농업 발전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나주愛배움바우처' 사용기관 모집

문화·예술·여가·스포츠·공예·체험 등…오락·교육기관 등 제외

나주시가 시민의 보편적인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인 '나주愛배움바우처' 사용 기관을 본격 모집한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바우처 등록을 희망하는 평생학습 교육기관 120여곳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주愛배움바우처는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폭넓고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 15만원의 학습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만19세 이상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 중 평생학습 분야 바우처 사업은 나주시가 최초다.

시민이 원하는 폭넓고 다양한 학습, 활동 참여는 물론 문화·예술, 여가·스포츠, 공예·체험 등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평생학습 바우처 운영사례, 홍보 영상, 사용기관 등록 설명, 퍼실리데이터를 통한 당일 현장 등록지원 및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설명회를 기점으로 보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 지원을 위해 사용 기관 모집에 본격 나선다. 사용 기관 등록은 연중 수시로 하지만 오는 7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함평경찰-노인회 범죄 예방 위한 업무협약

함평경찰이 지난 19일 함평군노인회(회장 조용무)와 어르신 교통사고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최근 농번기 철을 맞아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대폭 증가하고, 노인대상 학대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사회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함평군노인회는 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사고 줄이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예방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캠페인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윤창기 함평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홍보활동과 함께 눈에 띄는 반사지를 전동보행기나 농기계에 부착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낡은 교통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교통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처 94곳 제한

연매출 30억 이하서만 사용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화순지역에서는 94개 점포에서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화순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 변경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30억원 이하로 뒀다고 20일 밝혔다

지침 개정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 2760곳 가운데 94개 점포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됐다.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경제사업부 소속 사업장 등이 포함됐고, 일부 병원, 약국, 대형마트 등도 사용이 제한됐다.

단 연매출액 30억원이 넘더라도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전입 장려금, 산후조리 비용 등을 위해 나눠준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다.

화순군은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따로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제작해 발행하고 있다.

해당 가맹점은 점포 입구에 정책발행 상품권 이용 가능 안내 표시를 하고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